

집으로 가는 길

박태헌

집으로 가는 길은 하나뿐인데
뒤따르는 자동차가 빵빵대며 재빠르게 따라온다.

토끼처럼 성격 급한 자동차 먼저 가라고
얕밟지만 살짝 옆으로 비켜 준다.

집으로 가는 길은 하나뿐인데
앞서가는 경운기가 털털대며 힘들게 오르막을 올라간다.

거북이처럼 걸음 느린 경운기 마음 편히 가라고
멀리서 응원하며 조용히 따라간다.

집으로 가는 짧은 길에 우리 가족은
거북이가 되었다가 토끼가 되었다가 한다.